

2. 프로그래밍 학습 과정은? (1000자 이내)

우아한테크코스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기본 지식과 경험을 가진 교육생을 선발하기 때문에 프로그래밍 경험이 있는 상태에서 지원하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학습을 어떤 계기로 시작했으며, 어떻게 학습해 왔는지를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외적인 요인(예를 들어 컴퓨터 전공)이 아닌 자기 주도적으로 학습 계획을 세우고, 학습한 과정을 작성할 것을 추천해요.

자율전공학부에 입학하여 다양한 학문을 접해보았습니다. 제가 좋아하고 잘 할 수 있는 진로를 결정하고자 인문, 공학 가리지 않고 다양하게 수강하였습니다. 창작 그리고 주변 사람과 공유하는 가치에 큰 보람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친구가 웹 개발하는 모습을 보았고 멋있어보였습니다. 그 날 웹 개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찾아보았습니다. 웹 개발 영상을 따라 하며 나만의 첫 웹 페이지를 만드는 흥분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 후 본격적으로 웹페이지 개발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특히 화면을 만들고 타인이 사용 및 공유할 수 있는 프론트엔드 직군에 큰 매력을 느꼈습니다.

다양한 학습 방향 중 경제적 상황, 팀 프로젝트 수행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독학 후 팀 프로젝트에 참여하기로 계획했습니다. 독학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스스로 느슨해질 수 있다 생각했습니다. 단기 목표와 장기목표를 세웠습니다. 단기 목표는 6개월 후 반응형 날씨 예보 웹 사이트 만들기, 매일 코테 1~2문제풀기 그리고 장기목표는 노년층을 위한 상품 주문 웹페이지 만들기 입니다.

클론 코딩 인터넷 강의를 시작으로 유튜브, 책 등 다양한 플랫폼을 활용하여 독학했습니다. JS를 학습할 땐 “모던 자바스크립트”라는 책을 주로 참고했습니다.

배움을 기반으로 만들고 싶었던 웹페이지를 만들었고 사이트를 만들수록 더 잘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클론 코딩을 통해 학습하다보니 부족한 응용력과 이유 모르는 코드 사용이 문제였습니다. 제가 생각한 해결방법은 타인과 제 코드를 공유하고 조언을 얻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JS 온라인 스터디를 수강하였습니다. 4주간 수강생, 멘토님들에게 코드리뷰를 주고받으면서 풍부한 코드 지식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이 기간의 상호작용은 웹 개발을 학습하면서 가장 좋았던 학습 기억으로 남습니다. 팀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해 코드를 공유하고 함께 수정하는 능력은 저의 부족한 점입니다. 현재는 더 많은 코드 공유와 피드백을 받을 기회를 모색하고있습니다.

3. 프로그래머가 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1000자 이내)어떤 계기로 프로그래머라는 직업을 꿈꾸게 되었나요? 프로그래밍을 배워 최종적으로 하고 싶은 일이 무엇인지, 프로그래밍을 통해 만들고 싶은 소프트웨어가 있다면 무엇인지에 대해 작성해 주세요.

창작과 공유를 즐겨워 하는 이유도 있지만 특히 프로그래머를 꿈꾸게 된 이유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프로그래밍을 하는 제 모습이 좋습니다. 코딩을 배우기 전 저는 주로 감성적이고 추상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특성이 좋은 인간관계를 만들어주었지만 가끔 논리적 판단력이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코딩을 공부하기 시작한 후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논리적 판단을 하는 저를 자주 목격합니다. 코딩은 제게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제 모습이 마음에 들고 프로그래머를 직업으로 삼으면 저의 감성적인 부분도 강점으로 작용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두 번째, 디지털 소외 해월에 이바지 하고 싶습니다. 프로그래밍을 배우기 이전 대학생 때 발명,아이디어 사업화 공모전이 열려 노년층을 위한 키오스크 디자인 프로토타입을 제작하였습니다. 기술적 한계로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만들진 못했지만 프로그래밍을 배우면서 이제는 더 좋은 프로토타입을 만들 수 있겠다는 생각 뿐만 아니라 더 다양한 분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세 번째, 죽어서도 코드를 남기고 싶습니다. 래퍼 빈지노의 곡 중 “내가 내일 죽더라도 난 이 노래안에 있으니까 걱정마” 라는 가사를 가장 좋아합니다. 프로그래머로서 만든 코드들은 누군가 사용하고 공유되어 세상에 나의 자취를 남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러한 프로그래머의 존재감이 좋습니다.

최종적으로 저는 디지털 소외현상 해소에 도움이 되고 싶습니다. 만들고 싶은 소프트웨어는 전연령이 소외없이 사용 가능한 메신저 어플입니다. 발전된 기술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 역시 기술을 발전시키는 이들이 해결해야 할 몫이라 생각합니다. 특히 메신저인 이유는 디지털 소외현상이 심화 될 수록 연령간의 의사소통문제가 심화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프로그래머의 입장에서 발견하고 공감하여 디지털소외현상 해소에 이바지하고 싶습니다.

4. 마음이 끌리는 무엇인가에 긴시간 동안 몰입해 본 경험이 있나요? (1000자 이내)우아한테크코스는 약 10개월 동안 꾸준히 학습해야 수료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마음이 끌리는 무엇인가에 최소 1년 이상을 투자해 결과물을 만들어 낸 것이 있다면 공유해 주세요. 반드시 소프트웨어와 관련된 일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어떤 성과를 냈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떤 과정과 노력을 통해 어려움을 극복하고, 성과를 만들어 냈는지 구체적으로 작성해 주세요.

복학 후 풋살 소모임이 유명무실해 있었습니다. 이유는 회장 선배의 회비 횡령이었습니다. 풋살 소모임이 사라지니 남자 선후배 간 교류도 적고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컸습니다. 저는 풋살 소모임 “짹발란스”의 회장을 자처하여 약 1년 6개월 동안 “짹발란스”의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회원들이 탈퇴한 이유를 먼저 바로잡았습니다. 회계를 투명하게 운영하는 것,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모임 통장을 개설하고 모든 팀원이 계좌를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매주 투표를 통해 풋살을 진행했고 불참인 팀원에게 전화하여 안부를 묻고 회유했습니다. 참여율을 높이려 노력했습니다. 그렇게 매주 1~2회 1년 6개월간 풋살을 진행했습니다. 약 8개월간은 한 주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빠지면 팀원들도 열정이 식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중간에 부상으로 쉬어야 했지만 풋살장에 물이라도 사 갔습니다.

팀의 규모와 실력은 늘어 풋살대회에 참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회를 준비하면서 트러블이 발생했습니다. 매주 타 팀 초청 경기를 진행했고 팀원의 실수는 웃음보다 질책으로 이어졌습니다. 재미로 풋살을 차던 팀원은 점차 불참하였습니다. 선후배 간 교류를 목적으로 하는 소모임의 기초를 잃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타 팀 초청을 멈추고 해결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첫 번째 “행복 풋살 주” 만들기입니다. 주 1회 참여 투표 제목을 “행복 풋살 주”로 만들고 이날은 화내면 맥주를 사는 것을 규칙으로 하였습니다. 기존에 실력이 부족한 팀원도 부담 없이 나와 즐길 수 있었고 풋살장 분위기도 나아졌습니다. 두 번째는 “팀 섞기”입니다. 1군 수비수는 2군으로 2군 공격수는 1군으로 보내 1군과 2군이 섞여 대회 연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운영하였습니다.

대회 결과, 첫 참가에 준우승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상금은 코로나19로 사용이 지연돼 최근 팀원 간 담합을 위해 유니폼을 제작하기로 토론 후 결정하였습니다. 저는 유니폼 제작 시 안 작업에도 직접 참여했고 졸업 후 짹발란스 OB의 회장직을 맡고 있습니다.

5. 우아한테크코스에 참여하려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500자 이내)우아한테크코스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해야 하며, 동료들과 공동으로 학습하고 같이 성장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교육과 정보보다 훨씬 더 힘들 수 있습니다. 또한 10개월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에 상당히 중요한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아한테크코스 교육 과정에 참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미친듯 무언가에 노력해보고 싶었지만 무엇을 해야할 지 몰랐던 과거와 다르게 지금은 모든 것을 쏟아낼 수 있는 분야를 찾았다는 사실 자체만으로 저한테 큰 동기부여가 되어 자존감 자신감, 행복감을 줍니다. 하고싶은걸 마침내 찾아낸 지금 제 열정을 가장 밀도있게 사용하고 싶습니다. 우테코 합격 후기 글을 보았습니다. “모두가 열심히 하는 판타지에 가까운 팀플을 겪어볼 수 있다.” 모두가 열심히하는 우테코의 분위기 속에서 많이 배우고 싶습니다. 소중한 인생을 위해 우테코의 10개월동안 최대한 많은 것을 가져가고 싶습니다. 과정이 힘든 날도 힘들수록 더 많이 배운다 생각하면 전혀 힘들지않습니다. 프로그래밍 공부를 하면서 가장 좋았던 경험 중 코드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눴던 경험입니다. 코드는 글쓰기와 닮아 다양한 코드를 보면 볼 수록 코드를 쓰는 실력이 성장한다 느꼈습니다. 우테코의 열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팀원분들, 멘토님들과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며 함께 성장하고싶습니다.